

# 애니메이션 <악어의 거리>의 그로테스크성 분석

## Grotesque Analysis of Animation <Street of crocodiles>

성례아  
백석대학교

Sung Re-A  
Baekseok Univ.

### 요약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을 다른 예술분야와 비교하여 유치하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하위문화라고 생각해왔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애니메이션은 문화적 또는 예술적 측면보다는 상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단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적 표현들을 사용한 예술적인 애니메이션도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업적인 측면보다는 실험적이고 작가적 성향이 짙은 케이 형제의 애니메이션 특성을 살펴본 후, 그들의 대표작 <악어의 거리>의 그로테스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이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통하여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 Abstract

People have regarded animation as the subculture for childishness or children compared with other art fields. Although many such aspects changed, of course recently, animation has focused on the commercial side rather than the cultural or artistic side as usual. However, the animation of art using various experimental expression is also continuously manufactured among short animations.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look at Quay brother's animation with an experimental and an authorial disposition rather than commercial side. And then it is going to analyze the grotesque of <Street of crocodiles>. Moreover, it is going to consider the meanings who are going to express with this animation through grotesque expression.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애니메이션을 단지 만화영화의 범주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을 다른 예술분야와 비교하여 유치하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하위문화라고 생각해왔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애니메이션을 문

화적 또는 예술적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도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단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적 표현들이 등장하였고 최근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적이고도 예술적인 애니메이션들은 특히 유럽의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산업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일본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애니메이션을 대중문화에서 하나의 예술분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애니메이션에서는 다양한 실험적인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본 논문에서 고찰할 그로테

스크이다. 그로테스크한 표현은 문학에서는 물론 미술,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로테스크한 표현에서 나오는 진정한 아우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2. 연구 대상

본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에서 그로테스크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유리 놀슈타인과 함께 영화의 거인이라고 간주되는 체코의 얀 슈반크마이에르는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많이 제작한 애니메이터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선행 연구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의 영향을 받은 케이 형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케이 형제는 미국 태생으로 영국에서 활동한 애니메이터 형제로 얀 슈반크마이에르의 방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정도로 얀 슈반크마이에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케이 형제의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그들의 작품 <악어의 거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그로테스크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여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 후, 케이 형제의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그들의 작품 <악어의 거리>에서 그로테스크한 부분이 작품의 전체 구조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표현 형태로 나타나는지와, 그러한 표현에서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의 효과는 무엇인지, 더불어 케이 형제의 표현의도와 의미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케이 형제의 애니메이션 특성 연구

스티븐 케이와 티모시 케이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이지만 주로 영국에서 활동해온 영국 피기 로망의 이단인 쌍둥이 형제이다.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의 영화 <한 개의 제트와 두 개의 제로 Z 00>에서 주인공의 모델이 됐을 만큼 신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그들은 인형의 정밀한 동작보다는 내러티브 전달에 중심을 두고 인형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왔다.

인형 애니메이션은 인형제작방식과 극의 소재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었다. 반면 이들의 작품은 이전의 인형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던 내러티브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만의 포스트모던한 구조 속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케이 형제는 카프카에 심취해서 자신들의 작품 속에 동유럽의 이미지들을 불어 넣는다.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들은 폴란드의 고풍적이고 아방가르드한 포스터들에 이끌렸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동유럽 작곡가들의 음악을 접하면서 귀도 눈도 모두 동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다[1]. 이러한 취향은 그들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된 것이다.

케이 형제의 작업은 꿈속에서 일어날 법한 것들에 대한 상징화 작업이며 이러한 것들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한 몽타주와 카메라 워크는 그들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이다. 그들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익스트림 클로즈업과 롱 샷을 교차 편집하고, 비슷한 장면들을 반복하여 관객들의 무의식에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때때로 그들은 샷의 길이를 의도적으로 짧게 만들어 관객들이 인식하기도 전에 다음 샷으로 바뀌어 버리기도 한다. 그만큼 케이 형제의 애니메이션은 분절적이면서 유동적이다.

### 2. <악어의 거리>에 대한 분석

케이 형제의 <악어의 거리>는 198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자그레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수상하며, 국제적인 명성

을 떨쳐온 작품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독과 단절 그리고 공포를 표현한 작품이다.

케이 형제의 애니메이션 <악어의 거리>는 브루노 슈츠(Bruno Schulz:1892~1942)의 「악어의 거리」라는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애니메이션 <악어의 거리>는 브루노 슈츠의 소설 세계를 케이 형제가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루노 슈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브루노 슈츠는 폴란드의 도호비치라는 유대인 마을에서 태어나 건축, 리도그래프, 회화를 공부하고 ‘젊은 폴란드’라는 문예운동과 20세기 초의 독일 문학에 영향을 받아 뒤늦게 집필을 시작한 화가이자 소설가이다[2]. 그의 작품 경향을 말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인물이 카프카다. 따라서 슈츠는 카프카에게, 케이는 슈츠에게 영향을 받는다. 케이 형제가 실존의 문제를 주제로 한 브루노 슈츠의 「악어의 거리」를 재구성 하였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작품은 한 남자가 강당으로 들어와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키네토스코프를 들여다보는 라이브 액션으로 시작된다. 키네토스코프를 통해 보여지는 세계부터 그로테스크한 인형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이곳이 악어의 거리이다. 주인공은 표본실처럼 황량한 악어의 거리에서 불가해한 사건들만 경험하다가 마침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를 해부당하고 대체당한다.



▶▶ 그림 1. 도입부의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조화

<악어의 거리>의 처음 도입부는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조화로 시작된다. 이러한 이질적인 조화는 케이 형제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현실과 비현실의 양자 대립적 요소를 동시

에 배치함으로써 부조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인형 애니메이션의 세계는 거칠고 고요하며 공포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브루노 숄츠의 소설에 등장하는 화자로서의 '나'는 케이 형제의 작품 속에서 남성 인형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나'는 악어의 거리를 배회하게 되는데 그곳은 여러 가지 파편들-공중에 떠 있는 두 팔과 가위, 회색 모래, 나사못, 누더기 인형, 민들레 꽃씨, 상자 더미, 깨진 전구 등-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악어의 거리에서는 동일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편집증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들은 거대한 산업사회에서 단순하며 반복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장난 시계가 녹슨 나사못에 의해 파괴되어 그것의 내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있는데, 케이 형제는 그 내부를 참혹하게 잘린 고깃덩어리로 가득 채움으로써 그것을 보는 관객에게 비정상적인 충격에 빠지게 한다. 여기에서는 시계의 내부를 절단된 인간의 신체내부와 결합하여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인간은 거대 산업사회의 이끌어가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부속품으로서의 인간 또는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인간은 소외된 인간과 부합된다.



▶▶ 그림 2. 악어의 거리를 채우고 있는 파편들

주인공 '나'는 기괴하고 이상한 사건들은 체험하다 녹슬어서 더 이상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재봉공장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는 인체의 전신과 각 부위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사방에 진열되어 있다. 그런 다음, 주인공 '나'와 마주치는 것은 눈과 뇌가 없는 인형들이다. 이 이형들은 얼굴은 탈색되고 남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교활함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 인형들은 인간의 상체에 바퀴달린 수납 상자 형태의 하체를 하고 있어 다분히 그로테스크적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형들은 인형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형상을 암시하는 오브제에 가깝다.



▶▶ 그림 3. 주인공 '나'가 해체당하는 장면

이런 인형들은 결국 주인공 '나'의 머리를 절단해 그들의 머리처럼 눈과 뇌가 없는 머리로 바꾸며 다시 그 머리는 주인공 '나'의 머리로 바뀌게 된다. 또 주인공 '나'의 몸은 절단된 채 종이에 쌓여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신체의 절단은 섬뜩하다기보다 그로테스크하다.

### 3. 분석한 <악어의 거리>의 결론

<악어의 거리>에서 그로테스크한 표현은 절단되고 대체되는 신체를 통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익살맞은 유머와 끔찍함이라는 낯선 이질적 요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익살맞은 유머는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 간의 결합 - 고깃덩어리로 가득한 회중시계, 인간의 형태를 한 상체와 바퀴달린 수납상자로 된 하체를 가진 눈과 뇌가 없는 인형 등 - 을 통해 나타나고, 끔찍함은 주인공 '나'의 해부당하는 신체 - 신체에서 절단되어 나온 내장기관들, 머리의 절단 등 - 를 통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테스크한 표현은 주인공 '나'의 신체가 해부당하고, 눈과 뇌가 없는 인형의 얼굴로 대체되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부되고 대체되어 가는 주인공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를 암울하게 투영하고 있다.

###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그로테스크를 중심으로 웨이 형제의 <악어의 거리>를 분석하였다. 동유럽 문화에 대한 그들의 오마주는 작품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동유럽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 하였다. 이러한 특징이 형성된 것은 그들이 카프카에 심취했을 때부터이며, 특히 <악어의 거리>는 폴란드의 카프카라고 할 수 있는 브루노 슈츠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웨이 형제의 <악어의 거리>에 나타난 그로테스크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에서는 부조화와 신체적 절단이 핵심적으로 드러난다. 부조화는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인 그로테스크를 통해 드러난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결합, 신체의 파편과 시계의 결합, 인간의 상체와 수납장의 하체를 결합한 눈과 뇌가 없는 인형 이러한 것들은 갈등과 충동을 일으켜 작품에서 부조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신체적 절단은 이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로테스크한 표현으로 해부당한 '나'의 신체를 통해서 또 머리가 절단되고 눈과 뇌가 없는 인형의 머리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체를 절단하고 재결합하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통해 인간을 부속품으로 여기는 산업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웨이 형제는 <악어의 거리>를 통해 거대해진 산업사회가 인간의 실존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그로테스크를 통해서 기계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산업사회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관객 자신의 참혹하고 슬픈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1] 김준양,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연금술, pp.179, 한나래, 서울, 2001.
- [2] 김준양,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연금술, pp.182, 한나래, 서울, 2001.
- [3] 조중현, “얀 슈반크마이에르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4] Philip Thomson, 김영무 역, 그로테스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86.
- [5] 미하일 바흐진, 이덕형/최건영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서울, 2001.
- [6] 김홍희, 페미니즘. 비디오.예술, 재원, 서울, 1998.